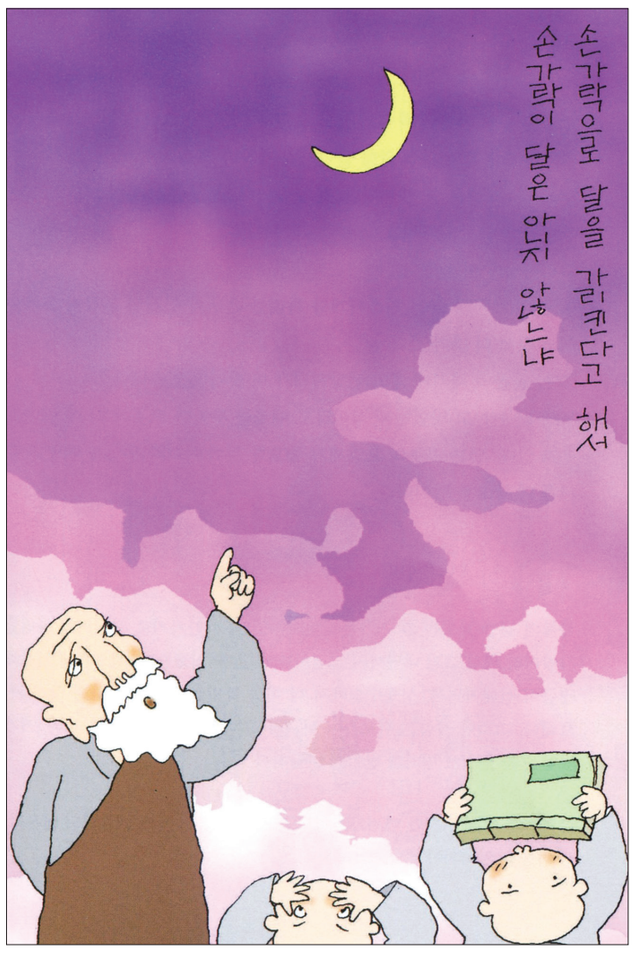
동자승과 스승 문답엮은 선만화 에세이



명상여행 마음
글 김충현 지음/그림 고성원
인북스 펴냄/1만 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날마다 되풀이 되는 평범한 일상이 바로 기적"
우리마음 그릇에 무엇 담느냐에 따라 삶달라져

이 책은 순진무구한 동자승과 지혜로운 스승의 문답을 엮은 선만화 형식의 에세이집이다. 옛 선사들의 화두를 오늘의 삶과 생활 방식에 맞춰 재구성한 1~3컷짜리 그림을 통해 마음의 속성은 무엇인지,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 명상 여행을 떠난다. 5개의 장으로 나뉜 95개 꼭지의 예화에는 선지식들의 시대를 뛰어넘는 깨달음과 촌철살인의 지혜가 담겨 있다.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한지, 왜 삶은 늘 무가치하고 고통스럽기만 한지 번민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치유를 위해 기획된 이 책은, 해학적이고 기지에 넘치는 삽화를 대하며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찬찬히 음미하면 진정한 행복은 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 준다. 예화와 함께 덧붙인 간결한 풀이가 맑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꾸어 가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머릿속에 저절로 생각 등불 켜지는 명상여행

행복의 길을 찾아 떠나고 싶다면 우선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저자는 '마주하다' '들여다보다' '내려놓다' '일깨우다' '심다' 등등, 마음여행 과정을 모두 다섯 단계로 나누어 깨달음의 예화를 제시한다. 각각의 예화마다 만든 사람의 의도와 시대 배경에 따라 담은 교훈적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어떤 관점서 접근해도 삶을 통찰하는 훌륭한 지혜를 만날 수 있다. 저자는 지나간 과거에 집착해서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나, 내일 무엇을 해야 할지 걱정하느라 정작 오늘을 그냥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과거든 미래든 행복하려면 오늘 하루하루가 좋은 날이어야 하고, 과거로 말미암아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어서 내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처한 현실이 고달프다고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소중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날마다 되풀이되는 평범한 일상이 바로 기적이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데서 행복이 깃든다는 진리를 깨닫는 마음이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이 이 책이 제시하는 중요한 가르침이다.

나를 알아야 주인공으로 살 수 있다

나는 본래 어떤 존재인지 잘 아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리석음서 비롯되는 편견과 집착을 내려놓고 찬찬히 자신의 마음을 살피면서 본래 자신의 모습을 찾으려 애쓰는 것이다. 무심하지만 막힘없이 탁 트인 하늘처럼 마음속을 깨끗하게 비우고 욕망을 내려 놓으면 의연하고 당당한 나의 진면목을 알 수가 있다. 헛된 욕심에 물들기 이전의 맑고 깨끗한 마음자리, 다른 이들이 어려운 것을 보면 그냥 넘기지 못하는 자비로움, 아름다운 것을 보면 감동할 줄 아는 순수한 마음, 이런 마음을 지닌 존재가 바로 본래 타고난 내 모습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본래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으려 부단히 애쓰는 마음 자세가 삶을 지혜롭고 평온하게 꾸려가게 한다.

내 마음 향하는 곳에 행복이 존재한다

유리병에 꽃을 꽂으면 꽃병이 되지만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듯,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 탐욕과 분노의 마음을 일으키면 지옥을 헤매게 되고,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열면 봄바람이 부는 행복한 세상을 만난다. 스스로 마음을 여닫기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 행복과 불행이 만들어진다. 얼음과 같이 차갑다가도 용광로처럼 뜨거워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리고 내 마음의 문을 어느 쪽을 향해 여느냐에 따라 순식간에 천국과 지옥이 교차한다. 내 마음이 가는 그곳에 세상이 존재하고 의미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소 타고서 소 찾고 있음 깨닫는 것이 명상 목적

누구나 찾아 헤매는 행복이나 진리는 내 마음을 벗어나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지닌 마음이 가장 지혜로운 행복의 씨앗이다. 세상 모두가 옳다고 하는 것도 내가 믿지 못하고 공감할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남들이 아무리 나에게 행복한 사람이라 해도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면 어찌 행복하겠는가. 행복의 파랑새는 먼 곳에 있지 않고, 나의 집 창가에 살고 있다. 날마다 되풀이되는 평범한 일상이 바로 기적이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내 안에 있는 희망을 일깨우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을 부르는 지름길이라는 마음가짐이 이 책이 강조하는 소중한 덕목이다.

▲저자 **김충현**은?

성균관대 철학과를 졸업했고,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 박사과정을 수학했다. 논문으로 〈승조(僧肇)의 보편적 인식체계연구〉 〈달라이 라마, 그는 누구인가〉가 있다. 또한 저서로는 달라이 라마의 가르침이 담긴 〈당신의 적이 당신의 스승입니다〉 〈하바드의 달라이 라마〉 〈쿤둔〉 〈네발 달린 명상가〉 〈자비 명상〉 등이 있다. BTN 불교TV 프로듀서를 거쳐 현재는 BBS 불교방송 춘천총국장으로 재직 중이다.

▲그림 그린 **고성원 작가**는?

서울대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책에 그림을 그리고 있다. 〈암각화에서 이중섭까지〉 〈선암사 연두 꽃잎 개구리〉 〈이솝우화로 배우는 경제〉 〈지치고 힘들 때 읽는 책〉 등의 그림을 그렸다.

佛法 되새김질하며 詩心 풀어내



다만 나는 영원한 것에 귀의한다
장천수 지음
올리브나무 펴냄/1만2천원

현대의학으로도 제대로 원인과 치유법을 밝히지 못한 극심한 상기증(강박신경증) 환자인 시인의 삶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아나는 듯한 일들이 다반사였다. 무어라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의 연속이었다. 그는 현실이라는 꿈속에서 늘 가위눌려 살아야 했다. 해야 할 일도, 하고 싶은 일도 다 놓쳐버린 시인은 변두리에서 내내 비주류로 머물면서 '삶을 통찰' 하는 지혜를 배우기 시작한다. 영혼의 치유자인 인류의 스승 붓다와 대행 선사의 말씀을 치유의 비방으로 되새김질하며 운명처럼 시를 붙잡아 마치 생명줄이라도 되는 양 한(恨)을 풀어내듯 시를 써왔다.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닥치더라도, 텅 빈 마음으로 조금도 경황의 기색이 없이 이승의 골짜기를 건너고 싶다는 염원을 품은 시인이 고독을 날줄로, 그리움을 씨줄로 삼아 직조해 낸 '도(道)가 잉태하고 자라는 자리로서의 시편들이다.

선승들이 화두를 품고 살 듯이, 이제 시인은 자신의 정체성과 세계의 모든 생명들에 대해 커다란 물음표를 그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물음들은 시가 되어 그의 마음속에 둥지를 틀기 시작한다. 그의 인생 주조음이 된 고독은 그로 하여금 이렇게 노래한다. "온 세상의 실상이 고독한 것임을/깨달음같이 내가 퍼뜩 보았을 때/그제야 고독은 내게 빙긋이 웃으며/바람처럼 한세상 지나가라 했고/물처럼 한세상 흘러가라 했고/구름처럼 한세상 떠돌다 가라 했네."

세상의 방관자로서 그의 가슴에 자리잡은 고독은 근원을 알 수 없는 그리움을 불러오고, 그리움은 생명의 근원에 대한 탐구로 이어진다. 그러기에 잡초들이 아스팔트 틈새에서, 쓰레기 널린 공터에서, 흙먼지와 매연을 뒤집어쓰고 "기를 쓰고 뿌리를 박고/기를 쓰고 잎을 피우고/ 기를 쓰고 꽃을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무슨 희망을 보자고/무슨 영화를 보자고/무슨 빛을 보자고" 그렇게 기를 쓰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알 수가 없다" 고 고백한다. "생은 진실로/차별 없이 존엄하고/아무것도 버릴 게 없었다/그냥 숙연해졌다"(〈생은 진실로〉)라고 물음표와 느낌표가 함께 춤 추는 듯한 '뭉클함' 을 토로한다.

세상의 어느 시인이 한 송이 장미꽃을 보고 '기적' 을 노래했듯이, 시인은 빨갛게 노랗게 파랗게 피어난 꽃들을 보고는 "무슨 한(恨)들을 곱게 삭여 빚은 넋들"이냐고 느낌표를 표하면서, "봄은/해탈의 계절"(〈해탈의 계절〉)이라고, 지금 여기에 이미 무르녹아 있는 도(道)를 노래한다. 시인이 앞으로 더욱 더 지향하고 노래하고자 하는 바는 시편들의 여기저기에 드러나 있다. 시인은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 강의를 변용 인용하면서, "그러니 이제는/'세상을 향한 독설을 거두고/내 손 안에 보이는 천하의 보물 쥐지는 못해도' /내 내면에 숨겨진 천하의 보물 지녔으니/빙긋한 미소로 천하의 보물 숨겨진/나의 내면을 주시하며 터덜터덜 가보자//그리하며 가다가 보면/내 내면에 숨겨진 천하의 보물과 불현듯 마주치며/틀이 바뀌고/꼴이 바뀌어 /운명이 바뀌어서/'산봉우리 저쪽에 자신의 얼굴을 숨기며/지혜와 자비의 양 날개로/하루 만 냥을 흩어 쓸 수 있는/신령스러운 독수리 되어 있을 게 분명할 게다' "(〈신령스러운 독수리〉)라고 다짐한다.

시인이 가리켜 보이는 "봄이 겨울을 밀어내는 노래" "고목에 꽃이 피는 노래" "애벌레가 허물을 벗는 노래" "쓰레기가 거름이 되는 노래" "아픔이 삭아져 힘이 되는 노래"(〈다시 시작하는 노래〉)는, 나와 너의 상대적인 구별이 없어져서 집착하여 취할 일이 없고, "일체 번뇌서 떠나 더 비울 게 없고",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는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세상의 주인공〉) 길 위서 불리어지게 될 것이다.

저자, 극심한 상기병앓아
삶은 고통과 괴로움 연속
비주류 머물며 삶을 통찰

대행 스님이 가리켜 보였던 주인공 자리는 '주인' 이라고 하지만 부리는 대상이 없이 텅 텅 비어 있는 주체이고, 주체라고 하지만 객체가 따로 없다. 그것은 시인이 "아프니까 사람이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사람이라서 내가 아파/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고/사람이라서 내가 외로워/다른 사람의 외로움을 알아/너와 내가/따로따로가 아니고/모래알 모래알이 아니고/밥알 밥알이 모여서 된 밥덩이가 되어/서로가 서로에게 사람의 정을 떠먹이며/서로가 서로에게서 사람의 정을 떠먹으며 살며/달처럼/세상을 환하게/해처럼/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거다/나무처럼/세상을 싱그럽게/꽃처럼/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거다"라고 노래했듯이(〈사람은 그래야 하는 거다〉), 나와 너와, 나와 자연이, 나와 우주가, 하나로 통섭되는 한마당이다. 그 자리에서는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따로 하지 않고, 찾는 자와 찾아지는 진리가 따로 하지 않는다. 진정한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되찾게 될 때, 시간은 더 이상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지 않고 '영원한 현재' 만을 노래 부를 것이다.

김주일 기자

